

코로나19 백신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성명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06차 회의, 제네바, 2022년 4월 11일~29일

조기 경고 및 긴급 조치 절차에 따라 성명을 발표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계, 소수 민족, 로마(Roma) 유랑민족 공동체, 선주민, 외국인 등 인종 차별에 취약한 개인 및 집단에 미치는 파괴적이고 상이한 영향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협약에 의하여 높은 질병률과 사망률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개인 및 집단에 대한 감염병의 불균등한 영향이 상당 부분 오늘날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노예제, 식민주의, 아파트헤이트에 뿌리를 둔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당한 인종차별주의를 시정하지 못함으로써 생명,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지역사회의 능력과, 코로나19 팬데믹과 차별과 배제의 지속적인 관행에 의해 노출되고 심화되어 온 견고한 구조적 불평등을 다룰 수 있는 당사국의 역량을 방해해왔음을 확인한다.

나아가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개인과 집단군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이들에 대한 깨끗한 물, 위생시설, 의료 서비스, 사회 안전망이 제공되지 못하여 동 집단에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병률 및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인종 차별의 젠더 관련 측면을 고려하여 구조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개인과 집단에 대하여 감염병이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또한 당사국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망자수 감소를 위하여 코로나 19 진단검사, 백신접종 및 확진자에 대한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2022년 4월 현재 고소득 및 중상위 소득 국가 국민은 대부분 2차 또는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데 비하여 저소득 국가 국민은 15.21%만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데 그쳤고, 이는 노예제와 식민주의 시대의 위계구조를 반복하는 국가내, 국가간 불평등한 배분 패턴을 만들었고, 협약이 보호하는 취약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을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가간 또는 한 국가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19백신과 관련 기술 보유에 있어서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식민지 국가들 및 노예 집단 후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국주의 세력에 특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확립된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의 규정과 관행에 의하면, 당사국은 의도적이건 결과적이건, 법적이건

사실적이건, 모든 형태의 인종 불평등을 근절시키고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차별이 없는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승인된 백신의 대부분은 특허 출원된 상태이고, 국가간 백신 불평등으로 인한 백신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백신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또한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일부 규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유엔사회권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다수의 특별절차담당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코로나19백신에 대한 저렴하고 시기적절하며 공평하고 보편적인 접근과 배포의 부재로 인한 인권 침해 및 국가 간 인권 불평등 심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음을 주목한다..

독일, 스위스, 영국은 2020년 10월 WTO에서 남아프리카와 인도가 주도한 코로나19 예방, 봉쇄 또는 치료와 관련한 의료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 보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요청에 반대하였다. 게다가 위 국가들은 자국 제약회사가 독점한 코로나19 을 보호하고자 백신 제조기술 이전을 거부하였을 주목한다.

또한 미국은 좁은 범위에서 백신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자는 주장에 찬성하였으나,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하여 자국 제약회사의 백신 제조기술 이전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주목한다.

2020년 8월 7일 발표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른 코로나 19팬데믹과 그 영향’에 대한 성명을 상기시킨다.

1. 국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기술에 대한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소외되고 차별 받는 집단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줄 것을 당사국에 거듭 촉구한다.
2. 당사국들, 특히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에게 TRIPS 협정에 대한 포괄적인 일시적 유예 방안을 지지하고,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집단과 소수자들이 입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고충을 완화하는 모든 국가적, 다자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 원조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워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